

# 인천의 미래 청년이 직접 그린다

### MZ세대 앞세워 리브랜딩... 정책 제언까지 참여 확대 SNS 콘텐츠 제작·현장 체험 병행... 6개월간 활동 운영

인천광역시가 2026년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향한 시민 공감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으로 청년들을 낙점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정책 제언까지 청년들의 감각을 빌려 자원순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복안이다.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26 자원순환 청년 서포터스'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6 자원순환센터 확충

시민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전략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디지털 전파력이 강한 MZ세대를 전면에 내세워, 자원순환센터를 '피하고 싶은 시설'이 아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 시설'로 리브랜딩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역 내 소재한 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은 물론 인천에 직장을 둔 직장인도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 향후 활동 계획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발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서포터스는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카드뉴스, 브이로그, 숏폼 등 MZ세대의 감성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게 된다.

특히 단순히 온라인 홍보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체험에 기반한 실용성 있는 정책 제언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서포터스를 선정해 연말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승환 환경국장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서포터스 활동이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인천의 환경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오산시가 가수초 통학로 과속방지턱을 신설한다. 오산시

## 오산, 초교 통학로 안전 강화 공사장 앞 과속방지턱 설치

경기도 오산시가 가수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인근 우미린 레이크시티 아파트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에 과속방지턱 4개소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가수초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로 최근 공사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차량 속도와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공사장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차량 감속을 유도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통학 시간대 학생 이동이 집중되는 구간 특성을 고려해 운전자 주의를 환기하고 보행 안전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공사 차량이 오가는 진출입로 바로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을 보장했다.

이관재 시장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에서만은 어떤 위험 요소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장 주변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 평택시,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탄력'

### 현대건설 등 10개사 간담회... 사업 방향·협력 논의 GTX 연장·KTX 개통 앞두고 교통 허브 조성 속도

경기도 평택시가 21일 평택시청 통합방위중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참여의향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자리는 지난해 9월 투자설명회의 연장선으로, GTX-A-C 노선 연장 확정과 수원발 KTX 개통을 앞둔 평택지제역을 명실상부한 미래형 교통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 기업의 체계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실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 및 관련 기업 10개사 실무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는 간담회를 통해 복합환승센터의 미래 발전상과 사업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는 평택의 지도를 바꿀 핵

심 도전 과제인 만큼 참여 의향을 밝혀준 기업들과의 긴밀한 실무 협력이 필수적이다"이라며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평택지제역이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교통 허브 및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실무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민간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예정된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평택시

평택=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2곳 추가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상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2개 지역, 2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환경구축과 지역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총 200개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 6개, 2024년 9개, 2025년 6개 지역 선정에 이어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 성남과 의정부 2개 지역, 2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2개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설치에는 총사업비 595억 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298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다.

### 성남·의정부 595억 투입 수영장·도서관 등 건립

도교육청은 성남시 삼평중 인접 용지에 수영장,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등을 포함한 총 585억 원 규모의 대규모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지역에 부족한 교육·체육·문화 기반을 확충해 학생들의 생존수업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물론 주민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정부시 고산초 유류 시설인 교사 2동을 새롭게 고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총 10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실, 공유주방, 창작실 등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 세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복합시설을 교육개혁 과제인 공유학교,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등과 연계해 교육·돌봄 시설을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관 개조, 생존수업 수업 장소 확충, 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 등과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해 학생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문화·복지·체육 시설 제공과 활용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수안=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경기도 안성시, 고유가·고물가 극복 긴급 추경 편성 총 180억 원 규모**

- 핵심 사업**
  - 고유가 피해지원금 149억 원 (대상: 기존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 및 소득 하위 70% 가구, 금액: 최대 55만 원 지급, 시기: 4월 27일부터 지급 예정)
  - K패스 환급지원 6억 원 (대상: 교통 이용 및 시민 이동권 편의 증진)
  - 농지특별조사 기간제 채용 9억 원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창출)
- 지제 사업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 5억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10억 원 (소비 진척 및 일체형 경기 활성화)
- 추진 일정 및 계획**
  - 4월 20일 시의회 의결
  - 4월 28일 시정운영위원회 의결
  -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전담 TF팀 운영
  - 4월 27일부터 1차 신청지급 시작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안성, 고유가 지원금 180억 긴급 추경 편성

### K패스 환급 등 생활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총력

경기도 안성시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장기화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8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관련 예산안을 20일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조율했으며 28일 제 2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149억 원)으로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 및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5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K패스 환급지원(6억 원)을 통해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며 대중교통 이용과 시민들의 이동권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농지특별조사 기간제 채용(9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자체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5억 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10억 원)이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관련 예산을 즉각 확보해 27일부터 시작되는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TF)팀을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추경 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과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 광주시 1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위생·외식 전문가 참석 기금 운영 공정성 강화

경기도 광주시가 21일 시청 이음홀에서 '2026년 제1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과 2026년도 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의·확정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식품 안전관리 사업 등 시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기금 운용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결산안이 확정됐다.

또한 결산자료를 반영해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식품위생, 외식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회의



방세현(가운데) 시장이 제1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전문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광명시가 반려인과 반려견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명시

## 광명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27일부터 선착순 모집 진행

경기도 광명시가 반려인과 반려견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7일부터 '2026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문화교실은 △3주 과정 행동교정교육 △그룹 산책 교육 △원데이클래스 등 반려생활에 꼭 필요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행동교정교육은 내달 9일부터 3주간 광명시 반항센터에서 진행하며 반려견 이해와 문제행동 교정, 놀이, 위생관리 등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다.

그룹 산책 교육은 16일 안양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열린다. 산책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진행한다.

원데이클래스는 △내달 8일 증명사진 촬영 '증명프로필' △내달 22일 수제간식 만들기 △6월 13일 인식표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참여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양육하는 광명시민과 반항센터 유기견 입양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27일 안대문 내 구급품으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반려견 문제행동 개선과 올바른 산책 방법, 반려생활 기초지식 등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